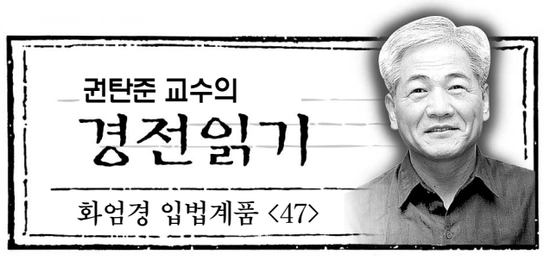


정취보살의 법문

지극하고 위없는 마음으로 공양
중생들의 욕망·근기에 따라 교화

선재동자가 관자재보살로부터 법문을 듣고 있는 장소에 한 선지식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정취(正趣)보살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선지식의 법문이 끝나면 그 선지식의 소개로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관자재보살의 다음 선지식인 정취보살은 선재동자가 있는 곳에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취보살은 동방(東方)에 있던 보살로서 공중으로부터 사바세계에 온다. 정취보살이 몸에서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이 모든 지옥 · 축생 · 아귀 · 염라왕의 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시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근심 걱정을 여의게 하였다. 또한 모든 부처님 국토에서 여러 가지 장엄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 모든 궁전에서 몸을 나타내어 보는 이들을 모두 기쁘게 하였다. 그런 뒤에 관자재보살이 있는 데로 오니, 관자재보살이 선재동자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말하였다.

선재동자가 그 보살이 계신 데 나아가 절하고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정취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으로 빨리 이르는 행(普門速疾行)'이다. 선남자여, 이 일은 알기 어렵다. 모든 세간의 하늘 · 사람 · 아수라 · 사문 · 바라문들은 알지 못한다. 오직 용맹하게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고 겁이 없는 보살들이라야 능히 듣고 능히 지니고 능히 알고 능히 할 수 있다."

선재동자가 반드시 믿고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면서 말해주기를 청하자 정취보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동방 묘장(妙藏)세계의 보승생(普勝生) 부처님 계신 데로부터 이 세계에 왔으며, 그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문을 얻었고, 거기서 떠난 지는 불가설 불가설 부처 세계의 티끌수 겁을 지냈다.

또한 낱낱 찰나마다 불가설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 걸음을 걸었고, 낱낱 걸음마다 불가설 불가설 세계의 티끌수 부처의 세계를 지나왔는데, 낱낱 부처님 세계마다 내가 모두 들어가서 그 부처님께 아름다운 공양거리로 공양하였다. 그 공양거리는 모두 위없는 마음으로 이룬 것이며, 지음이 없는 법으로 된 것이다.

나는 또 저 세계의 모든 중생을 보고 그 마음을 다 알며 그 근성을 다 알고, 그들의 욕망과 이해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였다. 또한 광명을 놓기도 하고 재물을 보시하기도 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시켜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넓은 문으로 빨리 이르는 행의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정취보살이 설하고 있는 '넓은 문으로 빨리 이르는 행'의 법문은 생각 생각마다 항상 부처님 세계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그가 설하고 있는 경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그의 법문은 분명히 '보문시현(普門示現)'에 관한 것이다.

그 '보문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일념일시(一念一時)에 시방세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문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취보살은 관자재보살의 덕(德)을 다시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재동자가 찾아간 대부분의 선지식은 항상 남쪽에 있었지만, 정취보살만은 동방에서 관자재보살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취보살은 동방의 보살로서 동방으로부터 온 보살이다. 그러므로 이 보살은 지혜를 증득하여 밝음을 열어주는 보살이다. '정취(正趣)'라고 이름하는 것은 지혜가 삿됨이 없이 항상 올바른 데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보살은 신비한 힘(神力)으로써 속히 시방의 모든 세계에 이르러 오직 깨달음의 도(佛道)를 행하기만 하는 것이다.

정취보살이 설하고 있는 '넓은 문으로 빨리 이르는 행'의 해탈법문이 발생한 곳은 미묘하고 훌륭한 덕을 무량하게 간직하고 있는 묘장(妙藏)세계이며, 그것을 가르쳐 준 부처님은 그 묘장세계로부터 가지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훌륭한 덕을 무량하게 출생시키는 보승생(普勝生)부처님이다.

이 법문이 일체중생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중생의 근원이 묘장세계이며, 누구나 일념일시에 보승생의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면서 중생들의 욕망과 근기에 따라 갖가지 방편으로 교화하여 자비행을 펼치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이 해서 누구든지 가지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순간 순간 갈 수 있다. 정취보살의 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대로 보통의 중생들은 알기 어렵겠지만, 용맹하게 정진하여 퇴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보살들이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는 일체중생이 진실한 생명을 일으켜 자비행을 행함으로써 바로 바로 열리는 세계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⑳

견성성불(見性成佛)-8

원시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신행이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 이 지면의 주제가 '선과 21세기'인데, 그 동안 주로 선(禪)의 종지(宗旨)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항공사에서 새로 최신형 여객기를 구입해서 도착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앞에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아마도 그 상에는 돼지머리와 북어포, 과일이 놓여있고 술잔도 채워 올렸으리라 짐작된다. 오래 전에 들은 얘기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껏 여전하지 않을까 싶다. 비행기, 그것도 최신형 점보 여객기라면 그야말로 현대 과학기술의 총화라 할 만한 물건이다. 그 앞에서 지내는 고사(告祀), 즉 '고하는 제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고하며 무엇 때문에 하는 일인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비행기를 새로 들여와 운용하게 되었음을 신령님들에게 고하고 앞으로 그것이 탈 없이 날아다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물리, 전기, 전자, 기후 등등에 관한 온갖 첨단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가진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비행기를 만드는 데에는 도대체 신령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여지가 없고 신령님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운용하려고 할 때에는 신령님부터 찾고 있는 것이다. 글쎄, 신령님도 여러 가지인데 과연 어떤 신령님에게 고사를 올리는지는 모르겠다. 막연하게는 그냥 천지신명이라 하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비행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신령님이 아닐까.

물신 숭배, 無明의 기본적 형태

또 하나 비슷한 얘기로, 십여년전,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큰방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장치였던 시절의 얘기가 있다. 그것을 큰 돈 들여서 장만하게 된 어느 기관에서 컴퓨터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얘기이다. 그 심정도 앞에서 이야기한 항공사의 심정하고 같은 것일 터이다. 개인 컴퓨터가 옛날의 그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성능을 가졌는데도 값은 훨씬 싼 요즘, 개인 컴퓨터를 장만하고 그 앞에서 고사 지낸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았다. 그러니 같은 기계라 할지라도 아마 꽤나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만 고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요즘 개인 컴퓨터에게는 고사를 안 지내지만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면 흔히들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는 사실이 그 짐작을 뒷받침해준다.

그런 행태는 이른바 물신숭배(物神崇拜)의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바깥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선(禪)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망념(妄念) 망상(妄想)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나아가 불교의 기초교리에서 말하는 무명(無明)의 기본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비행기든 슈퍼컴퓨터든 자동차든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고 이에 부여하는 의미도 다 우리가 지어낸 것인데,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노예 노릇을 자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에도 성행하고 있는 원시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신행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3>

안수정등(岸樹井藤)

지식의 한계 볼 수 있는 안목 필요
채워져도 더 갈망하는 것이 '욕망'

유전자는 생물체의 기본 청사진이다. 유전자라는 생물체의 모양을 만드는 청사진은 긴 시간을 두고 개체와 주위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빚어진 결과이며, 자연계 내의 먹이 사슬의 기본을 이루어 환경의 순환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이루게 하는 바탕이 된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분별력은 당장 사람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러한 지식이 급기야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인간은 자연계 내 생물의 순환 고리를 바꿀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긴 세월에 걸쳐 주위와의 연기적 결과로서 그 모양새가 결정된 현재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식품(GMO)에서부터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형광 관상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지식에 바탕을 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지식이 누적됨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지식 기준 역시 변한다. 따라서 지식을 어디까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현재의 지식으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태어난 지 몇 년 안되는 지식으로 수천년을 넘게 내려온 생명의 메커니즘을 바꾸고자 하는 식의 근본적인 적용은 이 지식의 완숙을 위해 후대에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시대에 있어서의 지식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등장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앞으로의 몫이다. 아무리 기업이나 일부 학자들의 말처럼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실험결과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해성은 그 식품을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섭취한 후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단 사람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 식품의 대사물이 자연계에 미칠 영향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고 하여 생명과학자들은 당장 너도 나도 유전자 조작 기술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오래 살거나 대량으로 만들어 내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치 멈출 줄 모르고 굴러가는 바퀴와 같다. 이 시대의 생명과학을 바라보면 누구나 잘 아는, 당장 꿀을 먹는 달콤함에 자신이 매달려 있는 외줄이 갉아먹히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비유한 '안수정등(岸樹井藤)'이라는 설화가 늘 생각이 난다.

우리에게 지식은 욕망이다. 지식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욕망이라는 광기(狂氣)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의미한다.

당장 몇 년을 더 살게 해주고, 당장 나에게는 없는 자식도 만들어 내고, 당장 배고픔과 아픔을 면하게 해주는 달콤함에 취해 철없는 지식을 정신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인과의 무서움과 철저함을 알게 해주는 마음공부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신과 주위 환경을 받아들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무량사 포교원 수강생 모집

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부설) 마하불교대학(불자 신행교육)

불교의식(범음, 범패) 제 3기생 학인모집(선착순 50명)

본 무량사 포교원 내 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교육과목

● 의식부문(10개월 과정) 초급 4개월, 중급 6개월

● 강의내용 : **[초급]** 목탁요령사용법, 새벽도량석, 종성, 송주편, 각단예불, 사시마지 불공, 관음단, 지장단, 칠성단, 용왕단, 조왕단, 산신단, 불공 및 축원, 행선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생축, 망축 쓰는 법 등...

[중급] 시련절차, 괘불어운, 104위신중거목, 천도, 49제 재공편, 상가염불다비편, 방생의식, 구병시식, 불상탱화점안법, 공장, 상가, 차량고사, 사물(북, 태징, 꽹과리 사용법)

※ 재장엄번 설치법, 경가축원문, 위패, 지의, 전 만드는 법

● 작법부문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라니. 오공양, 요잡, 화의재진언바라

※ 의식, 작법, 사물속성반 : 상기 부문을 짧은 기간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을 위하여 별도 지도함

● 강의시간 : 의식 초급반 (일반, 4개월), 매주(월요일) 오후 3시 ~ 5시
의식 초급반 (속성, 2개월), 매주(화요일) 오후 3시 ~ 6시
의식 중급반 (일반, 6개월), 매주(수요일) 오후 3시 ~ 5시
의식 중급반 (속성, 3개월), 매주(목요일) 오후 3시 ~ 6시
작 법 (일반, 10개월), 매주(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작 법 (속성, 5개월), 매주(일요일) 오후 3시 ~ 6시

마하불교대학(신행) 초급반 1기생 모집

●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교 육 비 : 무료
● 첫개강일 : 2004년 1월 9일(금요일)오전 11시 ●수 강 일 : 매주(금요일) 오전 11시
● 차량주차 : 대구수협공판장 內(신암동 육교부근)

무량사 포교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
전화 053)955-7725 휴대폰 011-9851-0108
원장 : 주 동주(동현) 합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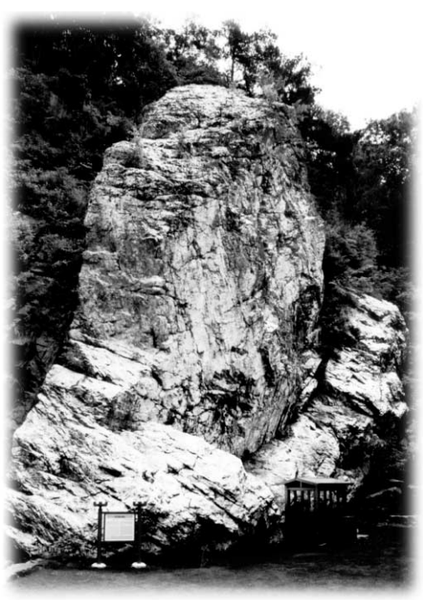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